

여야 전당대회 본격화... 호남정치 부활 신호탄 될까

민주, '이재명 대세' 최고위원 치열 지역출신 민형배·박병규 도전 '관심' 국힘 당권 주자들 "호남 현안 해결" 혁신, 조국 대항마 없어 흥행 한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각 당이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차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호남의 정치적 위상이 되살아날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자 심장지로 일컬어지는 광주·전남에서는 지도부 배출을 통해 집체된 호남정치의 부활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8월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춘석 의원(익산

여야 3당 광주·전남 전당대회 일정

제공: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도당 합동연설회·시도당대회	8월 4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민의힘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	8월 4일 오후 2시 나주 다목적체육관
조국혁신당 후보자 합동간담회·온라인 토론회	7월 8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피크뮤직홀

갑), 선거관리위원장에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을 선임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호남 출신 의원들이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10여명에 달하는 원내·외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낸 모양새다.

원내에서는 김민석 의원(4선)과 이언주 의원(3선), 강선우·김병주·민형배·한

준호 의원(재선), 이성윤(조선) 의원이, 원외에서는 김지호 부대변인, 박완희 청주시의원, 정봉주 전 의원,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현희 의원(3선), 박승원 광명시장(2선), 박병규 광산구청장(조선)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9명 이상일 경우 오는 14일 예비경선을 통해 8명으로 추린다.

특히 지역 출신으로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민 의원과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편승'을 거부하고 나선 박 구청

장의 격돌이 점쳐지고 있다. 박 구청장은 7일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정확한 출마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10분간 이어진 참석자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등 책 내용을 강조하며 최고위원 출마를 시사했다.

그러나 민 의원과 박 구청장 둘 다 같은 지역구인만큼, 전국 순회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역현안 공백 및 호남 지지세 분산도 우려된다.

광산구 민주당 지역위 한 관계자는 "박청장의 아킬레스건은 구청장 선거 당시 무투표당선으로 인해 정치세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최고위원에 출마한다면 이는 2년 후 지방선거를 노린 '세 걸집 용도'가 아닐까 싶다"며 "(박청장이) 과거 기아차 노조 지부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어 차별화된 공약이 기대되나, 두 후보 모두 광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어 '지역 소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 표가

나뉘어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당 대표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유력하지만,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일극체제'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나주다목적체육관에서 광주·전남도당 합동연설회 및 시도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에는 윤상현,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후보가 출마해 연일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지역민을 겨냥한 공약들이 눈에 띈다.

윤상현 후보는 "호남 등 취약지역 약진을 위한 '국민의힘 제2당사'를 광주에 설치하고 전국정당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혁신하는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2면에 계속> 오지현·정성현 기자

광주·전남 내일까지 산발적 비... 폭염 지속

전남 북부 등 일부 지역 "폭염특보는 당분간 유지"

광주·전남에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8-9일 일부 지역에서 비가 예보됐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 담양, 화순, 장흥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전남 19개 시군(목포·순천·여수·광양·나주·장성·영광·함평·무안·강진·영암·고흥·완도·진도·해남·보성·곡성·구례·신안)에선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후텋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자정부터 같은 날 오후까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9일에도 지역에 따라 가끔 비가 내렸다가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비는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며 예상 강수량은 10~40mm다.

8일 아침최저기온은 23~25도, 낮최고기온은 28~31도, 9일 아침최저기온은 23~25도, 낮최고기온은 27~31도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0~22도, 최고 26~29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보이고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전남에서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 전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찬기 기자>



전남도 유기농 친환경농업 선포식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박중탁 농협전남지부장과 전남 각 시·군 친환경농업인 등이 지난 5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유기농의 메카 전남! 세계로 뻗어가는 생명의 땅 전남!' 슬로건 아래 열린 '전남 친환경 미래농업 비전 선포식'에서 유기농의 1번지, 전남의 저탄소·미래농업 비전을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김양배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XPERON

엑스페론 <검색 아이콘>

밸런스 라인